

현대·기아차 친환경차 수출 '가속 페달'...30만대 돌파

올 1~11월 30만6266대 판매
전기차 2배 등 전년비 26.8% ↑
브랜드 론칭·신차 출시 늘리고
시장선점 박차 성장세 이어갈 듯



왼쪽부터 코나 일렉트릭, 쏘울 EV, 니로 EV.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친환경차 해외 판매가 올해 처음으로 3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자동차업체의 전기차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전기차 브랜드를 신규 론칭하는 등 시장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해외 판매 실적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현대·기아차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장 판매 기준으로 해외 시장에 친환경차 총 30만6266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8155대가 팔린 것에 비해 26.8% 증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전기차가 전년 6만8907대에서 올해 13만7286대로 2배 가까이 증가세를 보였다.

전기차 판매가 가장 많은 것에 이어 하이브리드도 11만8816대가 팔렸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4만9299대, 수소전기차는 865대가 판매됐다.

전기차 중에서는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EV)이 7만18대가 판매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9.7% 증가했고, 기아차의 니로EV도 4만4146대 판매돼 전년 대비 195.6% 증가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내년 초 선보일 아이오닉5 출시를 앞두고 전년 대비 22.5% 감소한 1만1488대 판매에 그친 반면, 기아차 쏘울 EV는 9020대가 팔리면서 전년 대비 판매량이 33.1% 증가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내년을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판매가 친환경차 판매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지난 10일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2040년부터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전동화 차량만 판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8~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기아차도 2025년까지 총 11개의 전기차 라인업

을 구축, 국내 시장을 비롯한 북미,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2029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대차는 우선 내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처음 적용한 '아이오닉5'를 출시할 예정이며, 기아차도 E-GMP를 적용한 CV(프로젝트명)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전기차는 국내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며 해외 판매가 부진했지만, 올해 유럽이 수소

사회 전환을 위한 각종 전략을 발표해 수소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추후 현대차와 기아차의 수소전기차 해외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친환경차 해외판매는 증가했다"며 "향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전동화 라인업 강화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추운 겨울에도 오픈 주행 문제없다

벤츠 'AMG GT C 로드스터' 출시
시트 상단 히팅 팬 '에어스카프'
최대출력 557마력·제로백 3.7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8일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C 로드스터'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AMG GT C 로드스터는 지난 10월 출시한 AMG GT 2-도어 쿠페의 부분변경 모델의 컨버터블형 모델이다.

외관은 프론트 스플리터, 사이드 스커트, 측면 흡기관 및 에어 아울렛에 실버 크롬 소재를 적용했다. 사다리꼴 모양의 테일 파이프 커버와 19인치(전륜) 및 20인치(후륜) AMG 10트윈 스포크 경량 알루미늄 휠, 레드 컬러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특징이다.

실내는 V8 스타일의 센터 콘솔에 디스플레이 스위치와 터치패드를 탑재했고, 스티어링 휠에는 포틀러닝 스티어링을 연상시키는 AMG 스티어링 휠 버튼을 장착해 역동적인 분위기를 구현했다.

차량의 지붕, 소프트탑이 닫혀 있을 땐 AMG GT 2-도어 쿠페의 형상을 실루엣을 유지한다.

시트 상단 부분에는 히팅 팬이 작동해 머리와 목 부위를 따뜻한 공기로 감싸주는 에어스카프도 장착돼 있어 추운 날씨에도 오픈탑 주행에 어려움이 없는 게 장점이다.

더 뉴 AMG GT C 로드스터는 AMG 4.0리터 V8 바이터보 엔진과 AMG 스피드시프트 듀얼 클러치 7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다. 동력성능은 최대 출력 557마력, 최대 토크 69.3kg.m다. 제로백 시간은 3.7초다.

시속 100km까지 뒷바퀴가 앞바퀴의 반대 방향으로 조향 돼 더 민첩한 코너링을 지원하는 AMG 리어 액슬 스티어링(AMG rear-axle steering) 시스템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고, 안전 시스템 '프리-세이프'(PRE-SAFE)와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사각 지대 어시스트', '차선 이탈 방지 패키지' 등 안전 사양도 적용됐다. 가격은 2억169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차박의 힘' 기아차 쏘렌토 판매 신기록 도전

이달 중순 10만대 훌쩍... '2016년 8만715대' 기록 넘어

기아차의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렌토가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에 힘입어 국내 시장에서 역대 최대 연간 판매량 돌파를 앞두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쏘렌토는 올해 1~11월 국내 시장에서 7만8892대가 판매됐다. 쏘렌토의 올해 월평균 판매량이 6990대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판매량은 8만대를 훌쩍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첫선을 보인 쏘렌토의 역대 연간 최대 판매량은 2016년 기록한 8만715대다. 올해 쏘렌토의 누적 계약량은 이달 중순 이미 10만대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차박'(차+숙박) 열풍 등으로 SUV 선호도가 높게데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은 3만7000여대로, 전체 계약의 35%가 넘는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지난 2월 사전 계약을 받았으나 정부의 친환경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판매를 중단한 뒤 7월 초 계약을 재개했다. 계약 재개 이후부터 5개월간 월평균 계약량은 약 4600대다.

이 같은 높은 계약 비중은 판매량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1월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은 2만1246대(27.6%)로, 판매된 쏘렌토 4대 중 1대 이상이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그랜저 하이브리드(1~11월 3만5634대)의 경우 그랜저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1%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비중이 더 높은 셈이다.

비록 친환경차 세제 혜택에서는 제외됐지만,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복합 연비 15.3km/l(5인승, 17인치 휠, 2WD 기준)로 소형차 수준의 높은 연비를 갖췄다.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돼 시스템 최고출력 230마력, 시스템 최대 토크 35.7kgf·m의 힘을 발휘한다.

최근 트렌드인 '차박'에 적합한 가족형 SUV인 점도 쏘렌토의 장점이다. 4세대 쏘렌토는 국산 중형 SUV 최초로 2열 승객의 승차감을 높인 6인승 2열 독립시트를 선택 사양으로 포함했고, 적재 물건의 무게나 차박시 유용한 2열 윈터치 워크인-폴딩 기능을 적용했다. 선택에 따라 시트 배치도 5~7인승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한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